



K-공감

'팀 코리아' 승전보에 대한민국이 웃다
극한 홍수·가뭄 막아라! 기후대응댐 14곳 추진
의료공백 메우는 119 종합상황실을 가다
국가유공자 1500명에 무료 장례 나선 이유

119 시민수상구조대



물놀이 사고 '0' 시민구조대가 된다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선엽 대장

원스톱!으로 걱정 스톱!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 강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등

※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 서울여성플라자 3층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 출구 154m

➡ 문의처 ☎

1577-1701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참여기관은 어디인가요?

 검찰 PROSECUTION SERVICE	 경찰청 METROPOLITAN POLICE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범죄피해지원센터	 법무부 법률상담센터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센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센터

※ 14개 기관 · 제도의 서비스 제공

더 공감

세상만사 일맥상통

언젠가, 어느 여배우가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나는 친구 손에 이끌려 그녀의 북토크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그녀는 연기에만 소질이 있을 뿐 말하는 데에는 별다른 재주가 없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는지 여기저기에서 인증을 늘어가며 하품을 참고 있는 독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다. 다름 아닌 가수 정용화였다. 예상치 못한 연예인의 등장에 사람들이 자지러졌다. 문학의 힘이 이리도 허약하다니! 그러한 현실이 못내 안타까웠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강연을 진행하던 중 과보를 치렀다. 첫 강연인지라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선생님!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일찍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당돌한 요구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비장의 무기인 ‘카라멜콘 땅콩’을 꺼내 들었다. “자, 과자 이름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맞춰 볼까요?” 아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라멜!”, “가라멜!”, “퀘러멜!” 등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뿌서뿌서’, ‘빠다코코넛’, ‘꼬깅콘’과 ‘누네띠네’를 골고루 준비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루하다고 아우성치는 아이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아이들에게 탈탈 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과자만도 못한 말솜씨를 지녔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몰려왔다. 강연 일정은 줄줄이 잡혀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해결책을 궁리한 끝에 강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김미경의 영상을 찾아봤다. 작곡과를 졸업한 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그녀에게 난데없는 강연 제의가 들어왔단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으나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강연을 수락했는데 음악을 작곡하듯 하고자 하는 말을 구조화해 모조리 외웠다는 것이 아닌가. 아아, 그러니까 글로 치자면 기승전결을 구성하는 것처럼 강연에도 일정한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구나! 멍하게 아팠던 머릿속에 땡 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은 실마리를 꼭 붙잡고서 강연을 새로 구성해 나아갔다. 이전에는 ‘본격 강연! 본격 강연! 본격 강연! 어라, 이게 아닌데...’ 순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맞춤법과 관련된 황당한 경험을 나누면서 주제를 일으켜 세우고, 앞선 이야기를 이어받아 맞춤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강연에 돌입한 다음, 분위기를 전환할 겸 과자를 꺼내 혼을 쏙 빼놓고서, 약간의 교혼을 곁들여 유쾌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다음 강연 대상인 중학생 남자아이들도 과자를 좋아할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만사 일맥상통하니 그들이라고 다를쏘나. **K**



이주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다.
어쩌다 보니 맞춤법을 주제로 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국어사전 속에서 온종일 헤매는 일이 싫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체질인 듯하다.



한라산 놀이터의 제주마 망아지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다. 육지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대규모 초지가 많아 말을 키우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13세기 몽골 침입 당시, 몽골은 '대완마'라는 말 160필을 제주도에 들여왔다. 이 말들이 토종말과 섞이면서 건강하고 온순하고 번식이 잘되는 '잡종강세(hybrid vigor)'의 특징을 지닌 '제주마'로 발전했다. 제주마는 흔히 '제주 조랑말'이라고 하는데 몸집이 작아 '과하마' 또는 '토마'라고도 불린다.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마의 혈통과 종(種) 보존을 위해 정부는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자연에 적응하며 진화된 제주마의 말발굽은 워낙 단단해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한 편자가 필요없다. 털색도 다양하다. 검은색, 회백색, 붉은색, 갈색, 회색, 얼룩, 크림색 등 털색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 가장 우수하고 인기 좋은 말은 털색이 온통 검은 '가라말'이다. 그중에서도



이마에 하얀 반점이 있고 네 발이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명마’를 으뜸으로 친다. 제주마는 매년 3~5월에 출산하고 바로 짝짓기를 해 340일 정도의 임신 기간을 보내다가 이듬해 봄에 망아지를 낳는다. 제주마 전문가 장덕지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는 “매년 똑같은 날짜에 망아지를 출산하는 말도 있다”고 말한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 나라에 바쳤다. 조선 시대 제주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김만일은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주마를 전투용으로 바쳤는데 그 수가 무려 1000필에 이르러 높은 벼슬을 받았다. 태어날 때 까만 구두를 신은 것처럼 반짝이고 앙증맞은 말발굽에 다양한 털색을 가진 망아지들이 한라산국립공원 마방지에서 서로 쫓고 쫓기며 뛰어놀고 있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8.05-11

No.766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8월 5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이주윤

'세상만사 일맥상통'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한라산 놀이터의
제주마 망아지들

06

커버스토리

물놀이 사고 '0' 시민구조대가 뛴다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선엽 대장

1억 명 이동 휴가 시즌
산간계곡·야영장 긴급 점검

정책 돋보기

13

지금 용산은

"원전특별법 추진
제3, 제4 수주
이어질 수 있게"

16

알쓸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외

20

정책 돋보기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추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추가 대책

24

돈 되는 정책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





25
이슈
‘위메프·티몬 사태’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6
포커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선정 기준 발표

29
이 주의 키워드
사이버 렉카

30
포커스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
가입자 133만 명 돌파

3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학생 ‘위험군’ 가장 많아



34
2024 파리올림픽
팀코리아, 대한민국을 웃게 하다

40
K-피플
디지털치료제 개발 스타트업
히포티앤씨 정태영 대표

44
정책현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가다

48
어피티가 본 MZ 생각
“현재 영양제 먹고 있나요?”

51
닥터 서의 진료실
A형간염



52
작은 영웅들
국가유공자 무료 장례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이보은 대표

56
옛 그림이 전하는 지혜
해질녘 산사 종소리에
삶의 등짐 내려놓고

58
여행이 있는 주말 로컬100 따라가기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

62
함께 즐긴다
2024 서대문독립축제 외

64
독자 공감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선엽 대장

“시민구조대 결성 18년 청양군 물놀이 사망사고 ‘0’ 안심하고 놀러오세요!”

여름 햇볕에 땅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자 물놀이 명소로 유명한 충남 청양군 칠갑산 자락 까치내관광휴양지(까치내유원지)로 속속 차량이 도착했다. 서둘러 자리를 잡고 돛자리며 텐트를 준비하는 휴양객들에게서 이선엽 충남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대장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 대장은 “아차 하면 사고가 나는 게 물놀이”라고 말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시민구조대)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활동, 안전지도는 물론이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조활동도 펼친다. 청양군에서는 2024년 39명이 시민구조대로 활동하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민구조대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년 전의 일이다. 처음 몇몇 의용소방대원이 모여 자발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구조활동에 나섰다. 자비를 들여 구명조끼를 구입하고 식사를 해결하곤 했지만 소방청이 운영하는 시민구조대의 이름을 달고 2009년부터 청양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름 체계를 갖춘 탄탄한 조직이 됐다. 매년 여름이면 시민구조대가 결성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에 나선다.

시민구조대의 노력으로 청양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우수 기관과 물놀이 안전 명소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이 대장이 이끄는 청양 시민구조대는 2022년 시민구조대로는 드물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수도 없고 활동을 강요하는 이도 없는데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올여름도 안전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이 대장에게 시민구조대 활동의 이유와 의미를 들어봤다.

청양군 시민구조대는 언제, 왜 생겼나?

청양군 의용소방대원들이 2005년 순찰팀을 결성한 것이 지금의 시민구조대가 됐다. 그중에는 나도 있었다. 약 20년 전이니까 30대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 이곳 까치내유원지를 비롯해 청양군 곳곳의 물놀이 장소에서는 매년 몇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용소방대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고는 조금의 안전대책만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시민구조대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활동에 쓰는 장비나 구명조끼며 튜브 같은 것들을 의용소



이선엽 충남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대장은 "피서객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청양군 119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이 까치내유원지에 잠시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방대가 직접 구입했다. 그러다가 청양군의 지원을 받고 소방청의 시민구조대로 재편되고 나서는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시민구조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나?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청양군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가능했나?

겉으로만 보면 시민구조대가 하는 일이 가만히 앉아 물놀이 하는 시민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런데 시민구조대는 평소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훈련을 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하고 이론 교육도 한다. 나만 해도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해마다 미흡했던 점을 고쳐나가면서 한 번의 실수도 없도록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구체적인 활동이 궁금하다.

주변 정비부터 시작한다. 익수사고 위험 구간에는 부표를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점검한다. 까치내유원지 내에도 곳곳에 구명장비가 구비돼 있다. 누구든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맨몸으로 뛰어들지 말고 장비를 활용해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시민구조대 대원들과 청양군 관계자 등이 물놀이 장

소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감시·순찰활동을 펼치고 계도활동도 한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보니 지나치다 싶을 만큼 피서객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입수 전에 안전사항을 전달하는 일이 많다. 누구나 피서를 오면 들뜨기 마련이다. 들뜬 마음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하고 순찰한다.

구명조끼와 튜브도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피서객들에게 가장 와닿는 활동일 것 같다. 처음에는 자비로 마련하기 시작한 구명장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늘어났다. 이제는 많은 피서객이 한꺼번에 대여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갖췄다. 어린이부터 몸집이 큰 성인까지 구명조끼의 사이즈도 다양하다.

구명장비는 해마다 전문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예전에는 무거운 튜브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가볍지만 효율적인 튜브를 사용한다. 시민구조대는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사용해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방법을 배운다. 요즘은 드론도 활용한다.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나?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찾고 구명장비를 전달하는 것이다. 드론이 촬영하는 영상은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훈련받은 시민구조

대라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양군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처럼 움직임이 크지 않은 구조 대상자의 작은 구조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많겠다.

어린이를 구조하는 일은 언제나 기억에 남는다. 매년 물놀이를 하러 오는 가족이 있는데 언젠가 머뭇거리며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아이가 사고를 겪을 뻔했는데 시민구조대가 구조해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 사고를 겪어 물을 무서워할 법도 한데 시민구조대가 있으니 안심할 수 있어서 매년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줘서 뿌듯했다.

개인적으로 시민구조대 활동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나?

관련 자격증을 30개 남짓 땀다. 얼마 전에도 생활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에 도전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 외에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시민구조대원이 많다.

모두 몇 명의 시민구조대가 있나?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는 일단 39명으로 시작했다. 대부분 의용소방대에서 평소에도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구조대가 결성되면 대원들은 피서객이 몰리는 시간, 날짜 등을 고려해 조를 짜서 움직인다. 사실 덥고 고된 일이다. 여름 더위를 그대로 느껴야 하는 야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주변을 살펴야 하니 체력소모도 크다.

고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막내아들이 큰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다. 쉽게 낫는 병도 아니었을 뿐더러 치료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집을 팔고도 부족했다. 절망스러웠던 순간,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손을 내밀어줬다. 시민단체를 통해 막내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내는 분도 있었지만 1만 원, 2만 원씩 도움의 손길을 준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렇게 수억 원이

모였다. 그 돈 앞에서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를 갚으며 살겠다고 말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시민구조대 활동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이 있나?

가능한 이웃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중 이동목욕 봉사가 있다. 청양군에서 이동목욕 봉사활동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이웃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전달해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시민구조대 대장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무래도 '안전'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청양군을 만들자는 것이 나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K**

김효정 기자

119시민수상구조대

올해 전국 233곳서 5912명 활동... 5년간 5500명 구했다

올여름 휴가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전국 해수욕장, 계곡 등 물놀이 장소 233곳에 배치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시민구조대)는 민간 자원봉사자 4217명을 포함해 총 5912명이다. 이들은 전국 85개 해수욕장을 비롯해 62곳의 계곡 등에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구조대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물놀이 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한다.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사고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소방청은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순찰활동과 구조활동도 펼치는 시민구조대가 최근 5년간 구조한 시민의 수는 5500여 명에 이른다. 더불어 4만 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34만 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소방청은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억 명 이동 휴가 시즌

AI·빅데이터 활용 특별교통대책 기간 운영하고 산간계곡·야영장 긴급 점검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안전한 휴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본격 휴가철인 8월 11일까지 총 1억 73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교통대책, 먹거리 안전, 수상안전 집중관리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산간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에 피서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캠핑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물놀이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관리 강화, 물놀이 안전시설물 즉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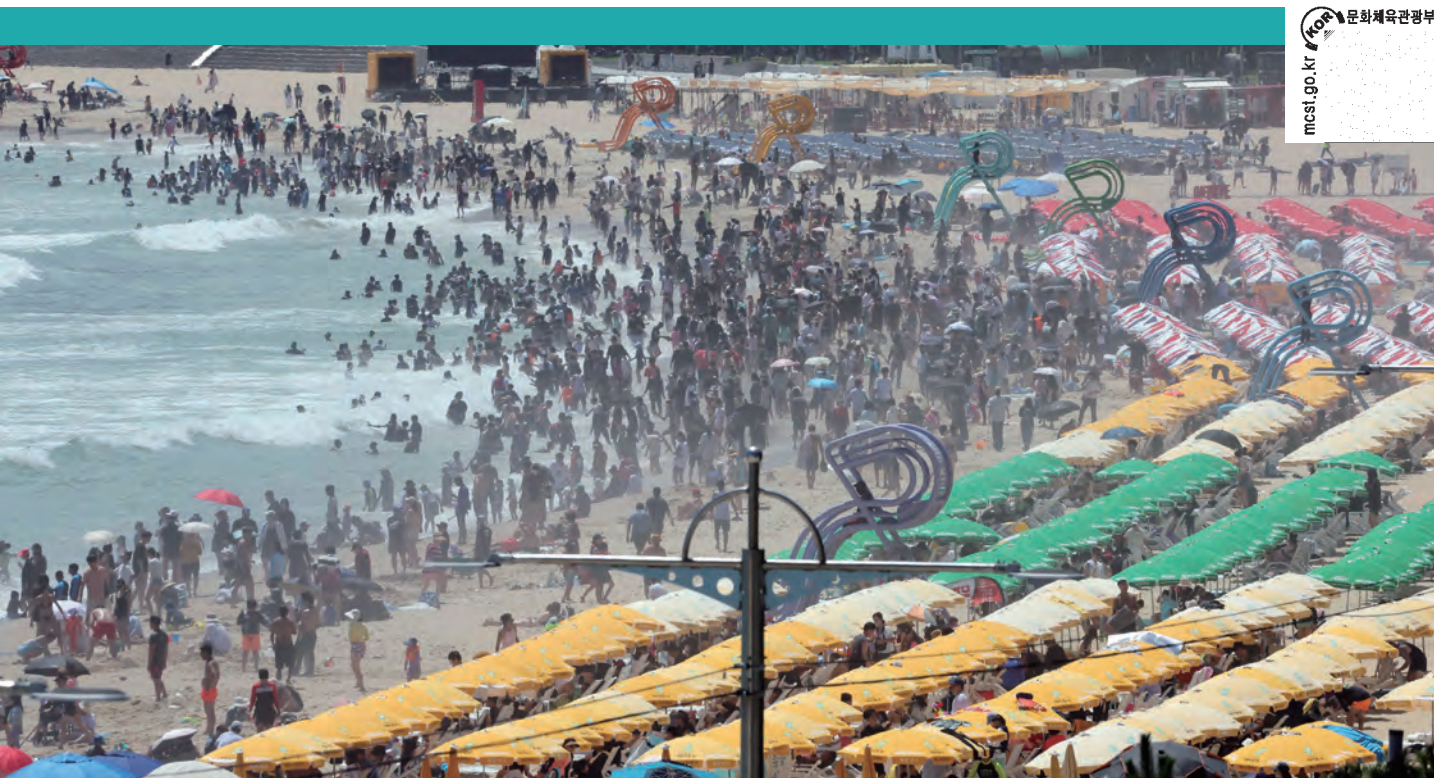
물놀이 전 안전수칙 확인해야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중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건수만

2800건이 넘는다. 2017년부터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147명에 이른다. 올여름은 폭염 기세가 강해진 만큼 물놀이를 즐기려는 휴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수상안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우선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7월 15일~8월 15일)에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또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6~8월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에 들어가는 대신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있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나 물에 뜰 수 있는 통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7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더위를 피해 물러든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이 그중 하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갯벌이나 갯바위, 방파제, 연륙교 등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1008건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경우는 139건으로 14%에 불과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7월 29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7월 말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약국체인 위드팜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국 30여 곳의 위드팜 약국의 출입문, 게시판 등에 ‘바다 물놀이 명품 처방은 구명조끼 착용’ 문구를 내걸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용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수상스키, 물안경·오리발, 구명튜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 안전사고가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였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도 많았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겪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재킷(팔튜브)을 잘못 착용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도 있어 올바른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교통시설·수단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기간(7월 25일~8월 11일)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 수칙



① 물놀이 전 주의사항

- 물놀이용품 사용 시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사용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돼 방수되는지 점검하고 마스크 안으로 머리카락 등의 끼임은 없는지 확인
-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빠짐 현상 및 부력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
- 암링재킷(팔튜브): 부력튜브가 가슴에 위치하도록 착용

-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을 착용한 후 동반자와 함께 물놀이를 할 것
-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도구를 미리 구명조끼에 달아둘 것
- 입수 전 수심을 확인하도록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충분한 준비운동 후 입수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물놀이를 중단할 것

② 물놀이 시 주의사항

- 물놀이 중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튜브, 서핑보드 등 다른 물놀이용품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필 것
-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 안전도구를 점검할 것
- 워터파크의 경우 놀이기구 탑승 전 주의사항과 안전요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감독 하에 물놀이를 할 것
- 해수욕장의 경우 파도가 심하거나 급류가 센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고 스노클링 시 잠수 등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 등을 벗지 않도록 할 것
- 스노클링 시에는 해안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며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하지 말 것 (다이빙 금지)
- 장마철 비가 내리거나 내린 직후에는 계곡과 같은 야외 물놀이는 자제할 것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알리고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기보다 주변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안전구조를 할 것

자료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교통 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갯길차로 운영 등을 통해 집중관리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 8% 늘렸다.

무엇보다 정부는交通安全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시설·수단을 사전 점검했다. 도로의 경우 교량 등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했다. 일일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지 접근성이 높은 전국 48개 버스터미널에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시설과 선로변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완료했다. 항공과 해운 분야에서도 안전 운행을 위해 국적사 항공안전강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공항에 대해서도 공항시설 특별 점검을 거쳤다. 여객선 전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에 국민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을 미리 예측해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에 표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졸음운전 사고와 2차 사고 문제를 다룬 '교통사고 체험관'이 운영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체계도 구축됐다. 긴급 구난을 위한 구난차량 2414대를 준비하고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에 헬기 이·착륙장도 충분히 확보했다. 또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를 조회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이나 안심번호 전화 연결로 대피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X]

김효정 기자

“원전특별법’ 추진 더 강력한 정책으로 제3, 제4 수주 이어질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지난 7월 17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팀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 해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관계부처는 경제와 외교 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령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AI 전환을 통한 도약,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를 접견하고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응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딥러닝 구현 방법론을 개척하고 구글 브레이ンを 설립하는 등 세계 4대 AI 석학으로 꼽힌다. 9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 교수를 만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 교수에게 “한국은 반도체·스마트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경쟁력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만큼 충분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AI 전환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혁신·안전·전환과 같은 국가정책을 직접 챙기고자 한다”며 “신설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글로벌 자문그룹에 앤드류 응 교수도 참여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응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응 교수는 “한국은 정부 의지가 강력하고 기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석학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술혁신 역량이 뛰어나며 AI에 필수적인 반도체 등 산업 기반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어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교육 훈련을 통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방산 협력 한 단계 더 도약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니 워 호주 외교통상을 접견하고 양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우리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안보와 경제·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호주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안보, 방위산업,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윤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14명에게 축전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14명의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양궁 대표팀 등 올림픽 개국 첫 3일간 메달을 딴 대한민국 선수 14명에게 개별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호진 선수에게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다”고 전했다.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오상욱 선수에게 “오 선수의 전광석화 같은 찌르기와 호쾌한 포효에 힘을 얻었고 승리를 위한 집념에 국민 모두가 함께 감동했다”고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한국 여자 양궁팀 전훈영·남수현·임시현 선수에게 “태극 공사들의 금빛 화살이 쏟아진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 양궁팀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선수에게도 올림픽 3연패의 쾌거를 축하하고 남은 경기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응원했다.

이외에도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금지현·박하준 선수와 유도 여자 57kg급에서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우민 선수,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오예진 선수와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월 2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왼쪽부터)남수현·임시현·전훈영 선수가 대통령 축전을 들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으로부터 올림픽 개회식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사과를 받았다.

이날 오후 8시 5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바흐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소개할 때 국가명을 ‘북한’으로 잘못 호명한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바흐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계·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각종 미디어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우려하는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41곳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도시가 대폭 늘었다. 7월 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40개 기초지자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신 발전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총 41곳이다. 시범지역은 크게 선도지역, 관리지역, 예비지정으로 나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되며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예비지정은 내년도 선정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도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이들 지역은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성공적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서다. 법은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에 대한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으로는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세종,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있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비지정 지역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30일 정부서초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착한가격업소 어디? 이젠 지도앱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좀 더 저렴한 게 낫다. 앞으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의 검색 창에 '착한가격업소'를 치면 된다. 6월 기준 7689개 업소가 등록돼 있다. 음식점은 물론 숙박시설, 이·미용실과 세탁소 등 업종도 다양하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을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도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사, 배달앱 제휴 할인도 진행 중이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등 배달앱 이용 시에도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섬 지역 드론배송 8월부터 본격 시행

8월부터 드론이 섬 지역에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한다.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14개 지방자치단체의 32개 섬 지역이 'K-드론배송 서비스'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 공주, 김천, 포천, 여수,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과 더불어 9월부터는 서산,

남원, 인천, 부산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섬뿐만 아니라 17개 공원 지역과 1개 항만도 포함된다.

주요 배송품목은 3kg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이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역배송할 예정이다. 공원 지역에는 지역 특산품, 항만 지역에는 선박용품들도 배송한다. 국토부는 "배송 물품의 무게를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해 물류취약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8월부터 드론이 섬 지역, 공원, 항만 등에 음식과 생필품, 구급용품 등을 배달한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드론 배송을 시범 비행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된다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10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없어진다.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과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9월

까지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객 불편 개선에 더해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밀크플레이션 걱정 없다” 원유값 동결 2017년 이후 처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원유값이 동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우유업계가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올해 원유값은 농가 생산비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리터당 26원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소비자물가 부담 우려로 동결하기로 했다. 원유값이 동결됨에 따라 우유 소비자 가격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카페라테 가격 인상 등 소위 ‘밀크플레이션’으로 지칭되는 우유



우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 가격이 올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상품 가격이 연세적으로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뉴시스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오름세 우려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원유값 동결과 함께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하세요 대부 지원한도 대폭 늘려

이제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8월부터 연말까지 1인당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이 73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담배 못 피운다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이면 담배를 못 피운다. 7월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

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시설이 포함되고 경계선 범위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령’과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면허가 취소·정지된다는 ‘도로교통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



달걀 산지가격 고시 60년 만에 폐지 깜깜이 거래 사라진다

달걀의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0여 년간 이어오던 달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계란 가격·조사 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기준 등을 명시한 달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과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도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 유통업체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달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달마다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정부 전화민원상담 더 빠르고 간편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빠르고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와 손잡고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공정위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차 일반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해왔는데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이면 2차 상담으로 매끄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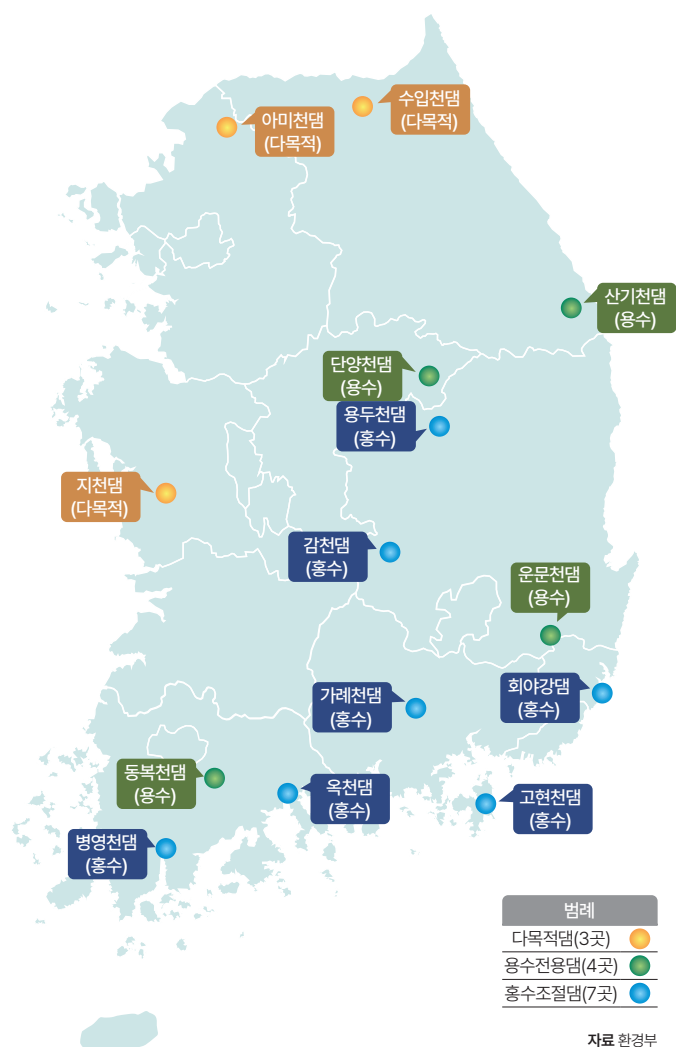
이어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다. 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 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K**

박지현 기자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극한 홍수·가뭄 피해 막고 미래 물산업 키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월 30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8월부터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은 80~220mm의 비가 한 번에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남부 277일간 가뭄… 이상기후 대비해야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에 나선 것은 최근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크게 확산한 데 있다.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우 패턴 변화의 영향도 크다. 일례로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2년 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홍수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 인명 피해는 85명에 달한다. 여기에 가뭄 피해도 늘어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 가뭄이 발생했으며 생활용수 부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신규 물수요를 감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팔당댐의 모습.
사진 뉴시스

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 등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래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년 빈도 강우에도 피해 없을 것”

이에 환경부는 2023년 5월부터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오면서 이를 후보지에 반영,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향후 건설되는 기후대응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홍수 방어 능력이다. 환경부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용두천댐이 건설

될 경우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은 가뭄 피해 예방에 쓰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순군 동복천댐이 앞서 건설됐다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가뭄이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기후대응댐 건설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주 구조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8월부터 시작되는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 뒤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된다.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조윤 기자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예비부부 올리는 ‘스드메’ 직권조사

앞으로 출산가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과도한 위약금과 끼워팔기 등으로 지적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민·관 합동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 1순위 우선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추가 지원과 가구원 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계속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하도록 돕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부부를 올리는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스드메’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서비스, 메이크업’의 줄임말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불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예비부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조사해 2025년 1분기에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가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가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7월 1일 최대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을 계획해 발표했다.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관련해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도 개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4만 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저출생 추가 지원방안

예비부부 보호 강화

- ❶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❷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 마련
- ❸ 결혼 준비 참고용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❹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출산가구 대상 주거 지원

- ❶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 1순위 선정
- ❷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 폐지
(현행) 1인 ~35m²/ 2인 26~44m²/ 3인 36~50m²
/ 4인 이상 45m²~ ➡ (개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❶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원 ➡ 120만 원
- ❷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 제공

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9월 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늘어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로 돌려받고 이제 영수증은 종이 대신 모바일로!

환경보호를 위해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100원의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를 아시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받는 종이영수증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 아세요? 한해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은 약 129억 장,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은 1079톤에 달해요(2019년 환경부 조사). 이 종이영수증을 줄인다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2641톤을 감축할 수 있어요. 20년생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더 심는 효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영수증을 줄일 수 있냐고요? 종이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특히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를 이용하면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는 건 물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0원의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요. 적립된 포인트는 매달 현금이나 신용카드사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아 쓸 수 있어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해요. 그다음은 내가 이용하려는 매장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가령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 'OTHER→계정정보→탄소중립포인트제 설정' 화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돼요. 이후 매장

주문 시 앱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 e쿠폰, e기프트 아이템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이 발급돼요. 물론 탄소중립포인트 100원도 함께 적립되고요.

이밖에도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갤러리아, 현대, 신세계, 롯데) ▲편의점(CU, 세븐일레븐, GS25) ▲은행(하나, KB국민) ▲통신사(KT, SK텔레콤) 등 25곳(7월 기준)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이 있다면 미리 전자영수증 발급 설정을 해두면 좋겠죠? 포인트는 매달 현금이나 BC카드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오페이머니 중 원하는 유형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은 전자영수증 발급 외에도 다양해요.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생활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돼요. 지구도 지키고 포인트도 쌓는 일석이조의 생활습관, 다 함께 시작해 봐요! ☑

조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도시락 전문점에 종이영수증이 가득 붙어 있다. 사진 뉴스시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설치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전담 창구. 사진 뉴시스

위메프·티몬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α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특별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2차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액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가 추산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이다.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비자 환불을 완료한 금액은 티몬이 약 131억 원, 위메프

약 43억 원이다.

위메프·티몬과 같은 쿠편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량과 판매자 동향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도 낮다고 파악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

강정미 기자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4인가구 609만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선정 기준 발표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cc)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생보위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오른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또한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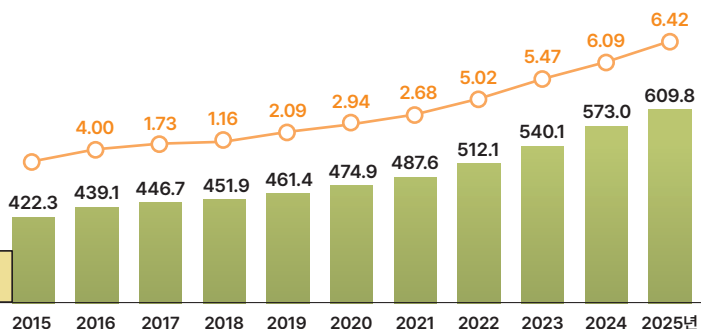
최저 보장수준은 곧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인상률(4인가구 기준)

(단위 %, 만 원/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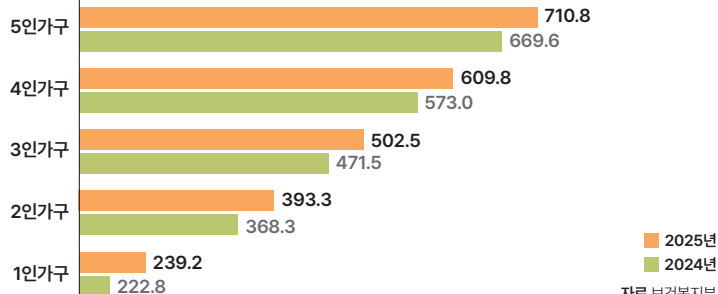
6.42%



4인가구 월 **36.8**만 원(6.42%) ↑
1인가구 월 **16.4**만 원(7.34%) ↑

2025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만 원/월)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수급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현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개선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한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급여-임차가구 기준임대로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1000~2만 4000원 인상한다. 자가거구에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133만~360만 원) 인상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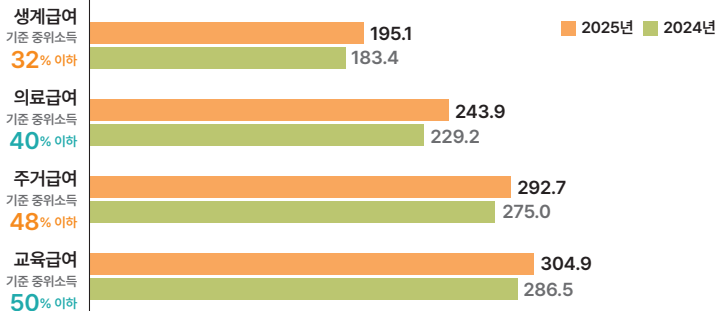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024년 대비 2025년)

월 **12**만 원(6.42%) ↑
(월 183만 원 이하 → 월 195만 원 이하)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단위 만 원/월)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024년 대비 2025년)

월 **5**만 원(7.34%) ↑
(월 71.3만 원 이하 → 월 76.5만 원 이하)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만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76.5	125.8	160.8	195.1	227.5	258.1
의료급여	95.7	157.3	201.0	243.9	284.3	322.6
주거급여	114.8	188.8	241.2	292.7	341.2	387.1
교육급여	119.6	196.6	251.3	304.9	355.4	403.2

자료 보건복지부

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으나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 따른 효과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간의 물가·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난 것을 반영했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동시에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두 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한다.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임연영 기자

사이버 렉카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재제부터 유튜브 구제역 등의 쓰양 협박 혐의까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유튜브를 주요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가운데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사고를 핵심 소재로 콘텐츠(라이브 영상, 일반 동영상, 쇼트폼 등)를 만드는 '이슈 유튜버'들을 부르는 신조어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인 '렉카'와 '사이버'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사고 정황이 있으면 온라인 공간에서 앞다퉈 해당 사건에 달려드는 이슈 유튜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렉카들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착안됐다.

문제는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드물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많이 채워진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유출 등의 권리(인격권 등)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

기(소위 '카더라'식 내용 구성), 비난·비방만으로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2월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에 따르면 국민의 92%가 사이버 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렉카들의 범법 행위가 연이어 발각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면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전했다. 또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7월 16일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콜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하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채널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임언영 기자

협박·가짜뉴스...
돈 되는 소문에 몰리는
사이버 사냥꾼 단죄
법이 나섰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

133만 명 돌파 청년 5명 중 1명 가입 신용점수 올라가고 부분 인출도 가능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33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고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6월 말까지 출시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정부기

여금까지 더하면 5년간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년간 가입유지비율은 90%에 달했다. 앞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80%→70%(1년→2년 경과),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이 4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2년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부여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청년 50여 명, 전문가 패널,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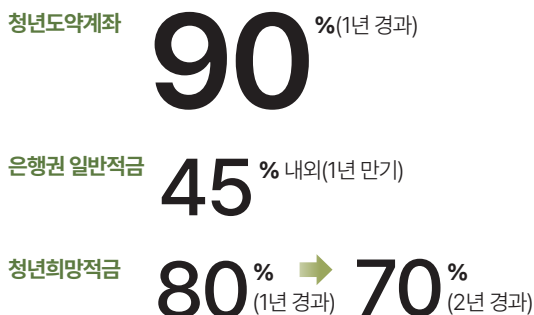
우선 성실납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가입,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5~10점의 신용점수(NICE·KCB 기준)를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면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센터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의 모습. 사진 뉴스3

적금 가입유지율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센터 5곳과 누리집으로 운영된다. 청년들의 금융경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은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고금리(5~7.8%)의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하며 인출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한다. 부분인출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납입목표 챌린지’ 프로그램도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와 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자경험(UX)도 강화한다. 청년들은 가입 은행별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주요 내용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 2년 이상 가입+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 추가부여(NICE·KCB 기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연내)

-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
- 오프라인 센터 5곳, 누리집 운영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앱 사용자경험(UX) 개선 및 금융정보 제공 강화

-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와 혜택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의 앱 UX 개선
- 청년도약계좌 누리소통망(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등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다. 이에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라 저축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7월 23일 개설한 청년도약계좌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납입목표 챌린지’ 등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청년의 금융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더 나은 청년층의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조윤 기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학생 '위험군' 가장 많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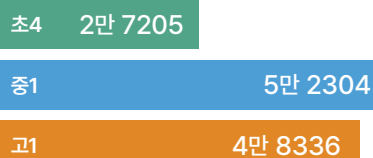
1위
남자
중학생
(3만 7418명)

1위
여자
중학생
(2만 65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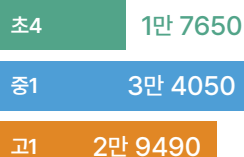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중복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약 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중학생이 약 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7월 25일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및 보호자 150만여 명이 참여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4월 실시된 올해 조사에는 청소년 124만 9317명과 보호자(초등 1학년 대상) 25만 6699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해 자가진단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복위험’도 다수

조사 결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1029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17만 4374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2만 7845명이다. 이때 과의존 위험군이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사용자군’과 사용시간이 늘어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사용자군’을 총칭한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

도 과의존 위험군인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8만 1190명에 이르렀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중학생(8만 9812명), 고등학생(7만 3136명), 초등학생(5만 8081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11만 9301명)이 여학생(10만 1728명)보다 많았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중학생(3만 7418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여자 중학생(2만 6533명)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2023년(23만 634명)에 비해 9605명 감소했다. 2022년에 비하면 1만 4658명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미디어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던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과의존 위험군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 1학년 6.6% '스마트폰 관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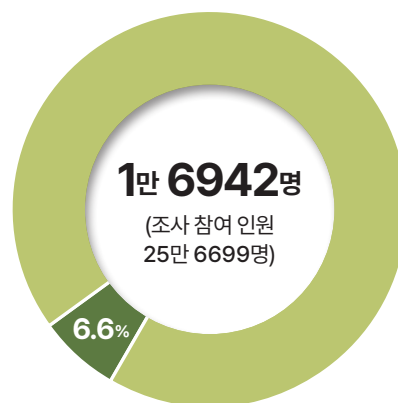
자가진단이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관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1만 6942명이 '스마트폰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시력, 자세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지도가 필요한 수준이다. 전체 조사 대상의 6.6%로 지난해(7.3%)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만 87명, 여학생이 6855명이었다. 남학생은 소폭 증가(479명), 여학생은 소폭 감소(236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부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치유에 나선다.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 미디어 과의존 수준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병원 치료,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인터넷중독예방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최대 40만 원(사회돌봄 계층 최대 60만 원)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집중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상담과 대안활동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한다.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는 초등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숙형 치유캠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에서 무료(식비 등 일부 자부담)로 진행된다. 

조윤 기자

초1 '스마트폰 관심군' 현황 (단위: 명)



2024년

남자

1만 87

여자

6855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고민이라면

청소년상담 1388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자녀 양육 기술교육 등 제공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문자상담: 1355

채팅상담: www.1388.go.kr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대안활동 등

기숙치유프로그램(1~4주 과정) 상시 제공

전화: 063-323-2646 누리집: nyit.or.kr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대안활동 등

기숙치유프로그램(11박 12일 과정) 제공

전화: 053-665-6900 누리집: www.youthfly.or.kr

자료 여성가족부



전현영, 임시현, 남수현이
7월 28일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가락과
금메달로 숫자 10을 만들어 양궁
세계 최강국임을 알렸다.

사진 뉴시스



(왼쪽)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이 7월 29일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한 후 '세 손가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른쪽) '어펜저스'로 불리는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오상욱이 7월 31일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

세계인의 축제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가 여름을 달구고 있다. 틀을 깬 시도와 화려한 볼거리로 시선을 사로잡은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파리올림픽은 연일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이다. 태극전사들 역시 감동의 드라마와 함께 연일 메달 수상 소식을 알려오고 있다. 열정과 환호로 가득한 파리올림픽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첫날부터 금·금·금...

7월 26일(현지시간) 파리 센강 오스테를리츠 다리 위로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연막탄이 터졌다. 파리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1924

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206여 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2개 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서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개막 첫 3일간에만 14개의 메달을 걸머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선수단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역대 가장 어려운 대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일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온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우리나라는 8월 1일 현재 종합 6위(금메달 6개·은메달 3개·동메달 3개)를 기록하고 있다.

개막 첫날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 올림픽의 전통은 펜싱 종목의 오상욱이 지켰다. 오상욱은 7월 27일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펜



(왼쪽) 세계 랭킹 35위로 올림픽에 임한 오예진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른쪽) 차가운 표정으로 권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의 영상이 화제가 된 김예지. '최고의 액션 배우'라는 찬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겪는 중이다. 사진 뉴시스

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파레스 페르자니(튀니지)를 꺾고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2019년과 202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보유한 오상욱은 이번 올림픽 금메달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남녀를 통틀어 한국 펜싱 사상 첫 기록이다.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

보인 오상욱은 경기 중 뒤로 넘어진 상대에게 다가가 손을 건네 잡아 일으켜주면서 실력 못지 않은 매너로도 큰 박수를 받았다. 오상욱은 잘 생긴 외모로도 해외 팬들에게 화제가 됐다. 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에는 국내외 팬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기분 좋게 출발한 한국 펜싱은 나흘 뒤 열린 단체전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 '어펜저스(펜싱+어벤저스)'로 불리는 오상욱, 구분길, 박상원, 도경동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45대 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2012 런던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2016 리우올림픽은 종목 로테이션으로 제외)에 이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은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쓰다

7월 28일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도 신화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양궁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며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금메달 시상대에 오른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전훈영, 임시현, 남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은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 뉴시스

수현은 손가락과 금메달로 숫자 10을 만들며 양궁 세계 최강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진 연패 기록으로 세계 양궁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나라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 기록이다. 외신들은 “만약 어떤 스포츠가 한 국가에 지배된다면 바로 한국과 여자 양궁”, “올림픽 최고의 왕조” 등으로 소개하면서 찬사를 보냈다

7월 30일에는 양궁 남자 대표팀이 한국 양궁의 존재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파이팅 포효’로 유명한 김제덕은 활을 쏘 때 손등에 벌이 앉았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10점 과녁을 명중해 화제가 됐다.

같은 날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는 오예진과 김예지가 동시에 일을 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사람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오예진은 마지막 발에서 10.6점을 명중해 243.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까지 수립했다. 세계 랭킹 35위로 사실상 메달 후보가 아니었던 오예진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사격 대표팀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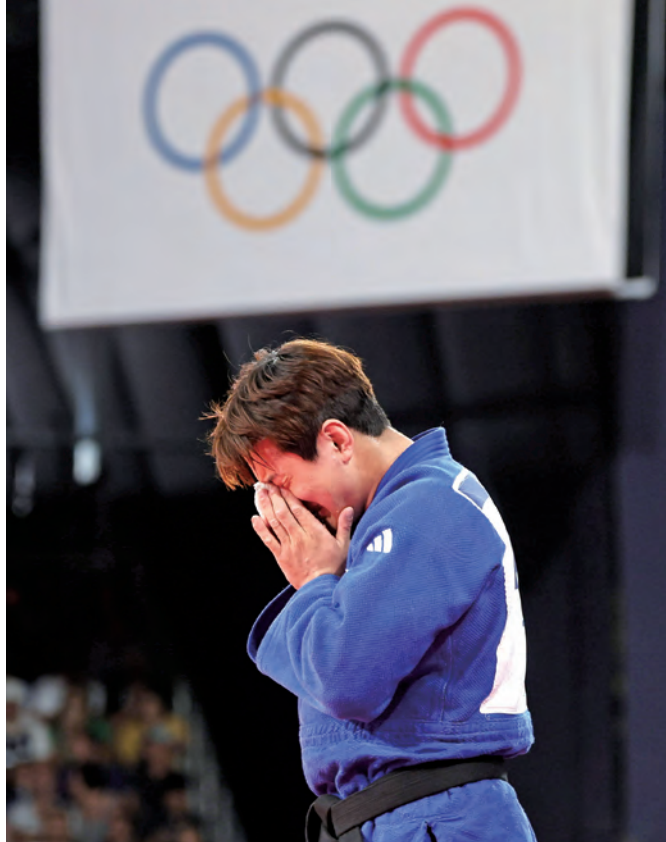
‘최고의 액션 배우’ 세계 누리꾼들 환호

은메달을 딴 김예지는 온라인에서 뜻밖의 유명세를 겪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김예지의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월드컵 여자 25m 권총 경기 영상이 세계 팬들을 흥시켰다.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차가운 표정으로 권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여전사 같은 모습에 ‘멋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까지 ‘액션영화에도 사격



(위) 탁구에서는 ‘배약이’ 신유빈과 임종훈이 혼합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탁구에서 12년 만의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두 선수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아래)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의 주인공 신유빈·임종훈이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왕추친·쑤잉사,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왼쪽)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 오른 허미미는 석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른쪽) 유도의 두 번째 메달 주인공 이준환은 연장전 돌입 48초 만에 승리를 확정지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 뉴스스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진 것 같다’, ‘김예지를 액션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댓글을 남기며 눈길을 끌었다.

공기소총 종목에서는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이 사격의 새 역사를 썼다. 7월 29일 파리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황위팅(중국)과 슛오프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6세 10개월 18일에 금메달을 목에 건 반효진은 대한민국 하계올림픽에서 100번째 금메달이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영광을 차지했다.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에야 처음 사격을 시작한 반효진은 경력이 3년밖에 안되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성실함으로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탁구·유도장에서도 태극기 휘날리며

탁구에서는 12년 만에 메달이 나왔다. ‘빠약이’ 신유빈과 임종훈이 7월 30일 파리 아레나 파리 쉬드에서 열린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꺾고 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과 북한의 혼합복식 결승을 기다리는 중국 관중이 일방적으로 홍콩을 응원해 분위기를 흔들었지만 두 선

수는 보란 듯이 세트스코어 4대 0으로 가볍게 홍콩을 꺾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 이후 오랜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서게 됐다. 한국 여자 탁구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단체전 3위 이후 16년 만이다. 8월 19일 군입대가 예정돼 있던 임종훈은 병역특례 혜택도 얻게 됐다.

유도 허미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러 가겠다”던 본인의 올림픽 출사표를 지켰다. 7월 29일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 올라 세계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에게 석패했지만 금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를 동경해 도복을 입었다.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2021년 별세한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허미미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이다.

이준환은 허미미에 이어 유도 종목의 두 번째

메달 주인공이 됐다. 7월 30일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도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1위 마티아스 카스(벨기에)를 이겼다. 연장전 48초 만에 승리를 확정지은 이준환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준환의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었고 메달 획득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수영에서는 ‘마린보이’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이 나왔다. 7월 28일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에서 김우민이 3분 42초 50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다. 시상대에서 눈물을 꼭 참은 김우민은 이후 진행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올림픽 메달을 위해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선수단의 초반 기세와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

라는 파리올림픽 메달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수촌 내에서 우리 선수단의 사기는 크게 오른 상태다.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만큼 폐회일인 8월 11일까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치르게 될 양궁 남녀 개인전과 혼성전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판다면 파리올림픽 전체 금메달이 두 자릿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짝짝 금메달 종목으로 근대5종 등이 거론되고 단식, 복식, 혼합복식에서 순항 중인 배드민턴에서 최소 2개 이상 금메달을 획득하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21개 종목 143명의 출전 선수로 구성된 소수 정예 팀코리아의 선전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고 있다. **김**

임언영 기자

‘스포츠 외교’ 바쁜 장미란 차관

선수단 응원하고 국제체육 인사 만나 체육 정책 논의하고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의 치열한 승부가 매일 펼쳐지는 가운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스포츠 장관 리셉션’에 참석했다. 또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무로후시 고지 일본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7월 22일 저녁(현지시간) 파리에 도착한 장 차관은 경기장을 찾아가 우리 선수단의 올림픽 여정을 응원했다. 7월 25일 개회식 전에 열린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7월 27일에는 유도 여자 -48kg급·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7월 28일에는 양궁 여자 단체전, 7월 29일에는 양궁 남자 단체전·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했다. 7월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7월 25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대한민국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풍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7월 30일에는 올림픽 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앞서 7월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스타트업 히포티앤씨 정태명 대표

“VR기기 쓰고 게임하며 ADHD·우울증 치료 히포크라테스 정신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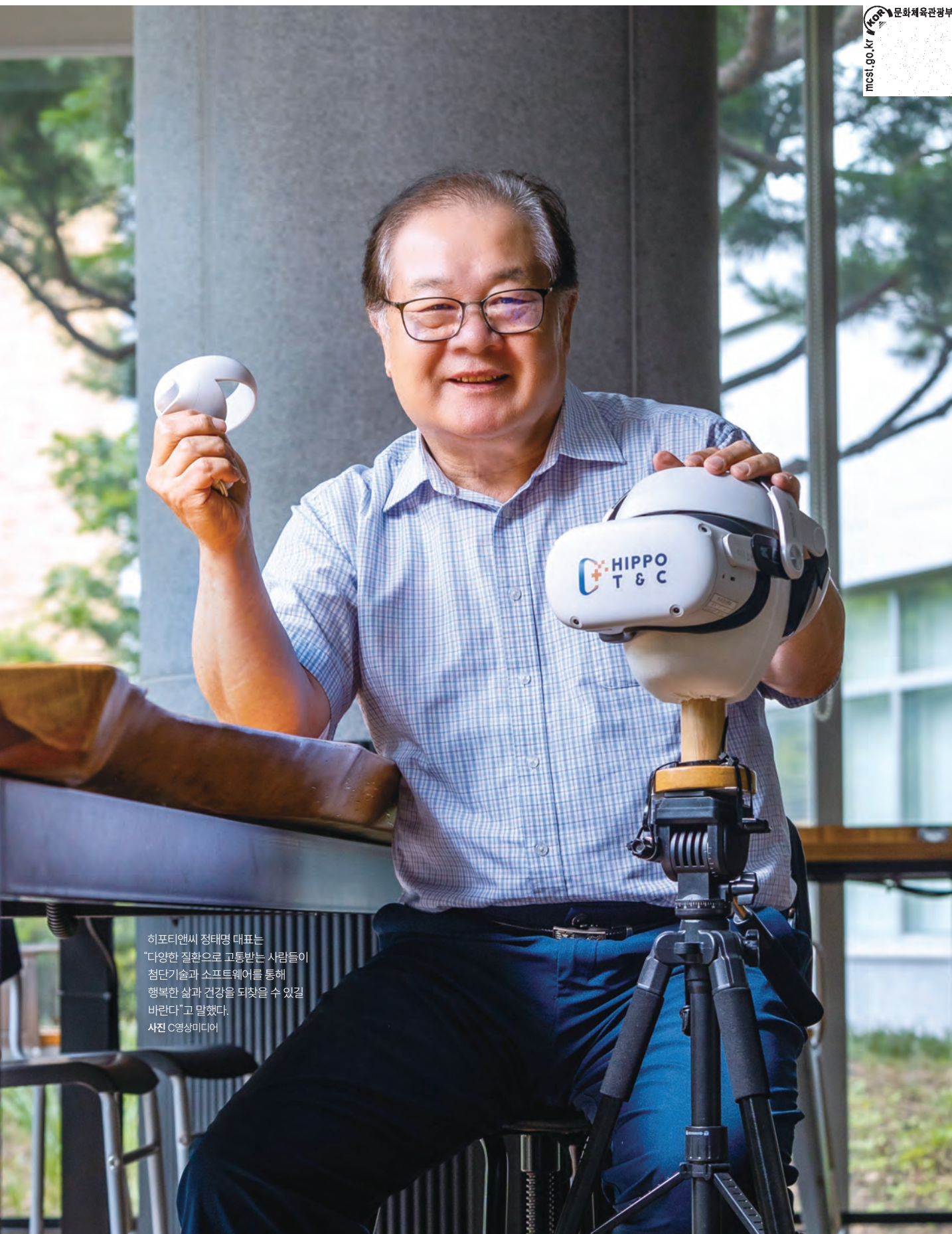
‘디지털치료제(DTx·Digital Therapeutics)’는 의약품 분야 혁신의 화두다. 디지털치료제란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게임, 가상현실(VR) 등이 디지털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패어테라퓨틱스의 마약중독 치료제 ‘리셋’을 인허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기술로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28년 191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3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 200조 원 시대를 열고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바이오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2020년 4월 창립한 히포티앤씨도 그중 하나다.

디지털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인 히포티앤씨는 정태명 대표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원 창업으로 시작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보호분과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보보호의 국제화에도 앞장섰다. 정 대표가 디지털치료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행복한 삶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다. ‘히포티앤씨’라는 사명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테크놀로지로 구현해 사람을 케어한다’는 뜻이 담겼다.

히포티앤씨의 주력 제품은 ‘어텐케어(Attn Kare)’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AI로 진단하고 VR로 치료하는 디지털치료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 2개 부문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미래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도 이름을 올렸다. 7월 15일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대상 디지털 전환 사업 컨소시엄에도 새



히포티앤씨 정태명 대표는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행복한 삶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로 선정됐다. 디지털치료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정 대표에게 들어봤다.

40년 동안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지내며 줄곧 정보보호와 플랫폼 분야에서 일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에 나선 계기가 궁금하다.

교수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자고 결심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바라본 디지털치료제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디지털치료제 분야에 뛰어들어 처음에는 피부병, 녹내장, 치매 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주변에 ADHD와 우울증을 겪는 아동과 청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디지털치료제를 만들고 기기를 상용화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

디지털치료제 어텐케어를 개발했다. 디지털치료제는 아직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달라.

어텐케어는 ADHD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품으로 진단용(어텐케어-D)과 치료용(어텐케어-T)이 있다. 어텐케어-D는 VR기기를 쓰고 가상세계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기억력, 집중력, 과잉행동, 사회성 등을 판단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를 통해 작업 수행 능력을 알아보고

미션 수행 중 손이나 몸, 머리의 움직임을 분석해 충동성과 주의력을 살피는 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ADHD 성향과 정도를 진단한다. ADHD 진단에 있어 85%의 정확도를 보여줄 만큼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데이터를 모아 AI 분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치료도 가능하다는 건가?

게임 기반의 어텐케어-T는 ADHD의 다양한 증상을 표적치료하기 위해 개발했다.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한 10개의 미니 게임과 2개의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집중력 향상과 과잉행동 조절 등을 이끌어낸다. 미니 게임은 카드 짝 맞추기나 비율 맞추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하루 20분 정도 게임을 하면 ADHD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미국 네브라스카대학병원과 마운트사이나이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ADHD 외에도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우울증 치료기기 개발은 우연히 시작했다. 창업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울증 관련 디지털치료제 개발 과제가 나왔다. 한창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우울)’가 이슈일 때였다. 우울증 디지털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대개 챗봇을 활용한다. 우리는 표적치료를 중점에 뒀다. 우울증의 증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맞춤형 치료에 목표를 두고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탄생한 제품이 ‘블루케어’인가?

맞다. ‘블루케어’는 AI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우울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가상 반려동물을 접목시켰다. VR을 통해 등장하는 가상의 반려동물 ‘코기’와 대화를 나누면 유대감이 생기고 주요 우울장애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무작위로 선정한 80명의 사용자를 대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 '카그모(왼쪽)'와 가상 반려동물을 접목시켜 우울증 개선을 돕는 '블루케어'의 실행 화면. 사진 히포티엔씨

“디지털치료제가 도입되면 의사는 치료용 콘텐츠를 처방하고 환자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치료받는 과정의 데이터는 대시보드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돼 지속해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우울감은 25.43%, 불안감은 1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상세계를 현실로 옮겨온 치료도 병행한다. 사용자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책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미션을 제시하거나 요가나 체조, 댄스, 복싱 등 실내운동 미션, 호흡 미션, 명상 미션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데이터화해 통계를 내고 시각화된 결과로 사용자의 우울정도와 주요 증상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쉽게 말해 명상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정확한 측정도구를 이용해 현재 사용자의 정서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다.

디지털치료제 외에도 웰니스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다.

인지능력과 행동 개선 프로그램인 ‘카그모’다. 카그모는 카그모테스트와 카그모업으로 나뉜다. 카그모테스트는 AI와 VR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 아이의 주의집중력과 충동성, 절제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다. 아동정신 건강의학 전문가가 개발한 다섯 가지 미션으로 아동의 인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공한다. 카그모업은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속 미션을 수행하며 주의집중력, 작업기억력, 충동억제성 및 사회성 등을 성장시키는 소프트웨어다. 친구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찾아 맞추기, 표적 맞추기 등 VR 콘텐츠를 즐기며 핵심 발달 영역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다.

약물치료도 있는데 디지털치료제를 써야 할 이유가 있나?

ADHD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지연돼 발생한다. 물론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복용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치료제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 없이 게임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서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ADHD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증상별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약물에 대한 보완제로서 디지털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해보인다.

ADHD를 겪는 아이들이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들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준다. 병원 내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의사들은 알 수 없다. 진료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했다. 게임 배경을 학교와 집으로 설정하고 게임을 통해 나온 행동패턴을 데이터화했다.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면 실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증상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물론 아직까지는 약에 비해 디지털치료제의 효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고 본다. 디지털치료제 개발은 거북이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디지털치료제가 도입되면 의사는 치료용 콘텐츠를 처방하고 환자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치료받는 과정의 데이터는 대시보드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돼 지속해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치료제가 의약품 분야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K**

서경리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가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병원 좀 찾아주세요!”

쉴새없이 전화벨 응급처리부터 병원 안내까지

존각을 다루는 현장이었다.

“환자분 의식은 있어요? 호흡은 하나요? 가슴과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확실히 보이나요? 경추 쪽 이상 있을 수 있으니 움직임 없도록 해주시고요. 눈에 띄는 다른 외상은요?”

7월 30일 오후 1시께. 경기 의정부 소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신고 전화를 받은 구급상황관리 요원들의 눈과 입이 분주해졌다. 이들 책상에는 네 대의 모니터가 병풍처럼 놓여 있었다. 실시간으로 뜨는 경기 북부 구급차량의 동태, 신고 내용과 신고자 위치를 매의 눈으로 좇으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응급처치를 내렸다. 그 사이 건너편 수보요원(사건접수요원)들은 현장 출동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무전을 주고받았다. 촘촘한 대응체계는 어떤 공백도 허용치 않았다.

응급환자 즉시 이송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암환자 적시 치료 지원, 의료



인력 수당 및 당직비 확대,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상담·안내 등 활동 대책도 포함된다. 모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흔히 위급상황 때 119에 전화를 걸지만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다. 그러면 ‘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경. 평일 하루 평균 350통, 주말과 공휴일에는 600통까지 전화를 받는다. 사진 C영상미디어

급상황관리사'에게 연결된다. 이들은 신고 접수 시 응급처치 지도뿐만 아니라 질병 상담, 병의원 안내, 이송 병원 선정 업무도 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급급상황관리사는 총 16명이다. 4명씩 4개 팀이 2교대로 근무한다. 2020년까지만 해도 팀당 2명이었던 인원이 올해 7월 두 배로 늘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따른 인력 보강이다.

급급상황관리사인 최미옥 소방장은 "2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일평균 상담 건수가 약 30% 증가했다"면서 "진료가 취약한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대 병의원 안내 문의가 가장 많은데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비응급 특수과의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도 눈에 띄게

“중증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이송 병원을 이제는 구급상황관리사가 함께 선정한다. 구급상황관리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진 거다. 5월부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업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늘었다”고 했다.

그다음은 이송 병원 선정 문의와 질병 상담 순이다. 이송 병원 선정은 ‘응급실 뽐뽐이’ 같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중증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이송 병원을 이제는 구급상황관리사가 함께 선정한다. 구급상황관리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진 거다. 5월부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업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 최 소방장의 말이다.

체계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관내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파악해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중이다.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유선 상의 응급지도는 구급상황관리사 본연의 몫이다. 낙상, 심정지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지혈,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안내한다. 하계 휴가철인 요즘은 익수 사고 신고가 늘었다. 영유아 사고는 자주 있는 일이다. 특히 기도폐쇄, 열성경련 사례가 많다.

“최근 11개월 된 아기 기도에 포도가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기가 숨을 못 쉬어 청색증이 온 상태였다. 아기를 뒤집어서 등을 두드리

는 방식의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안내했고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포도 알이 나왔다. 수화기 너머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가 호전됐음에도 출동한 대원들은 끝까지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최 소방장은 “보호자 입장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응급처치를 잘 따라줘 위급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면서 “119에 응급상황을 신고할 때는 소방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침착히 파악해 전달하고 지시받은 응급처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증환자는 응급실 안돼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북부는 11개의 관서를 관할한다. 의정부부터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고양, 일산, 파주, 연천까지다. 관할 지역이 광대한 만큼 전화는 설 새 없이 울린다. 평일 평균 350통, 주말과 공휴일에는 600통까지도 온다.

상황실 전면에는 대형 현황판이 걸려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들어온 ‘구급신고’ 전화만 253통이었다. 최 소방장은 “시민의식이 격상한 만큼 장난전화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비응급환자의 신고 비율이 약 70%”라고 했다.

“의료공백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하다. 응급환자라면 구급차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지만 비응급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찰 보기를 권한다. 급하게 질병상담이 필요한 경우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지 말고 먼저 119에 연락하면 좋겠다.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및 응급실 이용 자제가 응급환자의 소생을 도울 수 있다.”

간혹 응급실에 갈 만큼 급한 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되기도 한다. 이때도 119에 전화해 의료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인터뷰 | 최미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장·구급상황관리사

**“병원 찾느라
해매지 말고
119로 전화주세요”**



사진:중앙미디어

2006년 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최미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장은 구급대원, 행정 업무를 거쳐 2020년부터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구급상황관리 업무와 현장 업무의 다른 점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응급처치 하는 것과 유선으로만 지도하는 건 크게 다르다. 음성만으로 흥분한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처음에는 한계도 많이 느꼈다. 여러 동료가 협업하는 출동 업무와 다르게 단독으로 전화를 받고 온전히 자신의 판단하에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를 무사히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여운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했을까 밤새 고민하기도 한다. 구급 보수교육과 특별교육 외에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달라진 내부 풍경은?

“타 지역도 상황이 비슷할 텐데 비응급 특수과 진료 문의가 늘었다. 응급환자들은 권역이나 지역센터 등 관내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비응급 특수과 등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서울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 연결하고 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은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보다 불의의 사고와 같은 불행한 상황에 항상 노출된다는 점이다. 죽음에도 점차 무뎌지는 게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사명감도 많이 느낀다.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하며 전화 음성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와 통화를 하는데 거리가 먼 가평, 연천지역까지 출동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 시간 동안 흐느낌, 비명과 같은 음성을 계속 마주하다보면 덩달아 울컥하기도 한다. 다행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는 소방동료상담소(소담센터)가 있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심신건강 전문 상담센터다.”

최근 인력이 보강됐다고 들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인원 또한 보충됐다. 2020년도까지만 해도 야간 근무자가 1명이라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다. 좀 더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개설되길 바란다.”

장기간 의료대란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상당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공감한다.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돌아다니고 여러 차례 거절당하며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그럴 땐 119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의료상담과 병원안내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담해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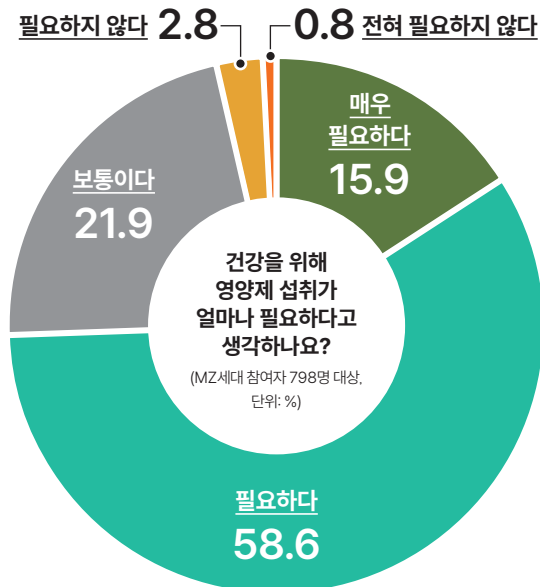
“의식이 있고 호흡곤란이 없으면 대체로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심혈관, 뇌혈관 증상에 해당하는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한다. 사고나 증상 발생 시 무턱대고 큰 병원부터 찾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지접합이나 화상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가야 한다. 119에 미리 연락

을 주면 전문·강소병원을 안내해준다.”

최 소방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당직의 수가 적은 응급실 내부 피로도 또한 상당히 높은 상태”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

박지현 기자

영양제 섭취해야 할까? 10명 중 8명 “서른 살 전부터 먹고 있다”



한 번쯤 알약 한 알로 밥을 대신하는 미래를 꿈꿔본 적이 있지 않나요? 상상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듯해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를 찾고 있거든요. 과연 영양제가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영양제를 찾게 될까요? MZ세대에게 물어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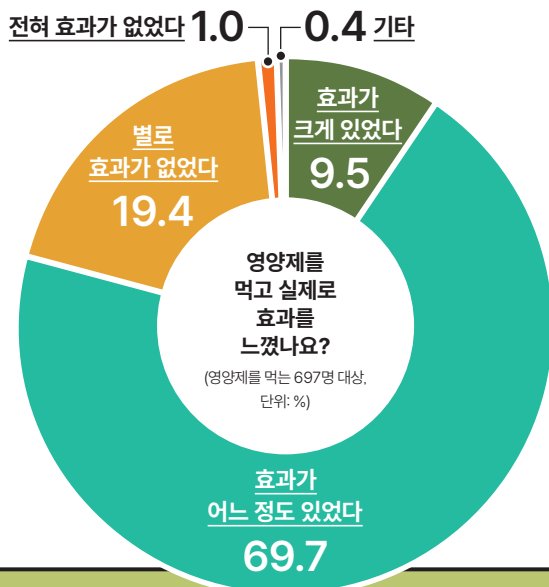
영양제, 이미 먹고 있어요 87.3%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MZ세대도 영양제 섭취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설문 조사에 따르면 58.6%가 ‘필요하다’, 15.9%는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도 ‘현재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다’는 답이 87.3%에 달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30대 이하의 영양제 섭취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20대 이전’이 11.0%, ‘20대 초반(20~24세)’이 27.6%, ‘20대 후반(25~29세)’이 39.6%로 나타났어요. 무려 78.2%가 서른 살 이전부터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MZ세대가 이토록 영양제 섭취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35.2%)’,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28.7%)’, ‘피로 해소를 위해(24.2%)’ 순으로 이유를 밝혔어요.

반면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8.7%)’,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몰라서(16.8%)’, ‘비용 부담(14.9%)’ 등을 꼽았어요. ‘기타(16.8%)’를 선택한 참가자 대부분은 ‘챙겨먹기 귀찮아서’라고 답했어요. 다양한 제품과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어떤 영양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찾기가 쉽지 않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MZ세대에게는 영양제가 우



현재 영양제를 먹고 있나요? (MZ세대 참여자 798명 대상, 단위: %)

먹는다 **87.3** 안 먹는다 **12.7**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나요?

(영양제를 먹는 697명 대상, 중복 선택 가능, 단위: 명)



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 MZ세대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까요? '1만~3만 원'이 45.2%, '3만~5만 원'이 23.5%, '1만 원 이하'가 21.4% 순으로 나타났어요.

설문에서 MZ세대의 영양제 구매 경향에 몇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보여요.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구매가 가장 높다는 것이예요. 무려 697명 중 624명이 '온라인 쇼핑물'을 선택했거

어피티가 **798**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7월 19~25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건강을 위해 영양제 섭취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현재 영양제를 먹고 있나요?

① 먹는다 ② 안 먹는다

영양제를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 먹는 101명)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식단을 통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어서
③ 부작용이 걱정돼서 ④ 비용이 부담돼서 ⑤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잘 몰라서 ⑥ 기타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먹는 697명)

① 20대 이전 ② 20대 초반(20~24세) ③ 20대 후반(25~29세)
④ 30대 초반(30~34세) ⑤ 30대 후반(35~39세) ⑥ 40대 이후

영양제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먹는 697명)

①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② 피로 해소를 위해 ③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④ 피부 미용을 위해 ⑤ 체력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 ⑥ 질병 예방을 위해
⑦ 의사의 권유로 ⑧ 기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나요?(중복 선택 가능)

① 종합비타민 ② 비타민(A·B·C·D·E) ③ 오메가3 ④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⑤ 칼슘 ⑥ 마그네슘 ⑦ 철분제 ⑧ 루테인 ⑨ 콜라겐 ⑩ 실리마린 ⑪ 프로폴리스
⑫ 단백질 보충제 ⑬ 기타

영양제 구매에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나요?(먹는 697명)

① 1만 원 이하 ② 1만~3만 원 ③ 3만~5만 원 ④ 5만~10만 원 ⑤ 10만 원 이상

주로 어디에서 영양제를 구매하나요?(중복 선택 가능)

① 약국 ② 온라인 쇼핑몰 ③ 건강식품 전문점 ④ 대형마트
⑤ 병원 또는 클리닉 ⑥ 선물 받음 ⑦ 기타

영양제를 먹고 실제로 효과를 느꼈나요?(먹는 697명)

① 효과가 크게 있었다 ②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③ 별로 효과가 없었다
④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⑤ 기타

영양제가 규칙적인 운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단을 따르고 있나요?

① 균형 잡힌 식단(과일, 채소, 단백질 등) ② 신선한 식재료(유기농, 친환경) 사용
③ 가공식품 줄이기 ④ 설탕과 소금 섭취 줄이기 ⑤ 저탄수화물 식단
⑥ 고단백 식단 ⑦ 채식주의 또는 비건 식단 ⑧ 간헐적 단식 ⑨ 소식
⑩ 따로 식단을 하지 않는다 ⑪ 기타

영양제가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영양제 섭취 ② 건강한 식단 ③ 규칙적인 운동 ④ 충분한 수면 ⑤ 기타

MZ세대 참여자 798명의 대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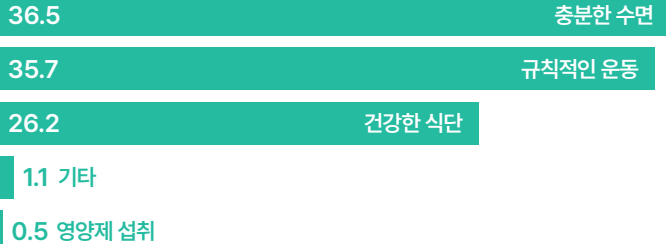
영양제가
규칙적인 운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
95.6%



영양제가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
89.5%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단위: %)



든요. 다음으로 109명이 '선물로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영양제가 상대방의 건강을 고려한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양한 영양제 종류가 있는데요. MZ세대는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 결과 '유산균(479명)', '종합비타민(385명)'이 가장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비타민(347명)', '오메가3(326명)', '마그네슘(242명)', '루테인(161명)'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밖에 미용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는 '콜라겐(104명)'과 '단백질 보충제(125명)'도 먹고 있었어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 식단과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영양제가 식사나 운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설문 조사 결과 89.5%가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응답했어요. 마찬가지로 95.6%가 '규칙적인 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강한 거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설문 참여자가 '균형 잡힌 식단(30.2%)'과 '가공식품 줄이기(14.6%)'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Z세대 지선 님은 "영어 속담 중에 'You are what you eat(네가 먹는 것이 곧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

어도 식습관이 엉망이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이 잘 갖춰져야 영양제 같은 부수적인 조치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알 수 있어요. '영양제 섭취'라는 답은 0.5%에 불과했어요. 반면 '충분한 수면(36.5%)', '규칙적인 운동(35.7%)', '건강한 식단(26.2%)'이 높은 비율을 보였어요. 특히 '잠이 보약'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체력과 면역력 모두 향상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M세대 장군 님은 "저는 수면시간을 늘린 후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수면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고 이유 없이 살이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 운동이나 식단조절 없이도 오히려 15kg이 빠졌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라고 이야기해줬어요.

Z세대 수주야 님은 "피부가 안 좋아서 한의원에 다녔는데 무엇보다 잠이 제일 중요하니 7시간 이상 자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더니 피곤함도 덜하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어요.

영양제 섭취는 건강을 위한 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MZ세대는 잘 알고 있었어요. MZ세대는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K**

A형간염

감기인 줄? 콜라색 소변, 전신 가려움 때 의심을

“지난달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속이 메스껍고 피로감이 너무 심해졌어요. 감기 기운도 있어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네요.”

29세 민철 씨는 휴가 때부터 시작된 극심한 피로감과 위장 관련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피검사를 실시한 결과 A형간염을 진단받았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다양한 감염병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 중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치료 적기를 놓치기 쉬운 A형간염에 주의해야 한다. A형간염은 해산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료 적기를 놓쳐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B·C형간염과 달리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는 질병이다. 이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 면역력이 약한 20~30대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이 A형간염의 일차적인 증상이다. 이후 일주일 이내 황달 징후가 나타나는데 콜라색의 소변이나 탈색된 대변을 보는 등의 증상과 전신에 걸친 가려움이 나타난다. 황달은 2주 정도 지속된다. 다만 A형간염에 걸린 소아에게서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차적 증상이 나타난 일주일 이내 황달이 보이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으로 A형간염을 의심해 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경우가 많다. 소아와 달리 성인은 급성간염으로 발전하거나 심하면 한 달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적절히 치료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B·C형간염 보균자일 때는 간염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A형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다행히 A형간염에는 백신이라는 확실한 예방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번의 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A형간염 백신의 경우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하고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는 경우에만 접종이 권장된다. A형간염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여름철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면 건강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다.

첫째, 외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하자.
둘째, A형간염 바이러스는 85℃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라지므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한 후 섭취한다.

셋째,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는 자주 소독해 청결하게 사용한다.

넷째, 여행할 때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노력한다. **☑**



서정아

병을 고치는 데는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가정의학과 의사. 레바논에서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구에서 ‘미클린의원’을 운영 중이다. 책 ‘어쩌다 마흔, 이제부터 체력 싸움이다!’를 썼다.

국가유공자 무료 장례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이보은 대표

10여년 간 1500회 장례 지원 “영웅의 마지막 길 지켜주고 싶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잘살 수 있는 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마지막 길, 기꺼이 예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이곳을 운영하는 이보은 대표는 10년 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횟수는 1500회가 넘는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아예 180㎡ 규모의 빈소를 마련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주기도 한다. 이 대표는 6월 27일 열린 ‘2024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서 이처럼 영웅에 대한 마지막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찰·소방공무원, 100세 이상 어르신, 장기기증자 가족에게도 장례식장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는?

15년 전 장례업을 시작했다. 이 일을 하면서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데 가족

이나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생계가 곤란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을 종종 봤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의 마지막 길이 너무 쓸쓸해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나서 장례를 치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러 명이 동업하던 시절에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지만 11년 전 혼자 장례식장 운영에 나서면서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싶었다. 인천보훈지청에 연락해 우리가 장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례식장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빈소를 마련해놓고 있다.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나?

없다. 가족이나 주변에 국가유공자가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시 애기봉 근처가 고향이다.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는 분들을 보며 자랐고 그래서인지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180㎡ 규모 빈소에서 삼일장을 치르는데 장례식장 대여료만 기본 200만~300만 원은 든다.



10년 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식장을 1500회 이상 무료로 제공한
공로로 '2024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이보는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 소속 선양단이 장례의전 행사를 지원한다.
선양단이 의전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왼쪽)과 태극기 관포식을 마친 뒤 예를 갖추는 모습. 사진 C영상미디어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 없이 쓸쓸히 마지막 길을 떠나는 국가유공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마다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나라가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을 따지거나 부담이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내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쓸 돈을 아끼면 충분히 가능하다. 바빠서 여행갈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다. 그럴 시간에 국가유공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게 더 보람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는 자주 있나?

인천, 시흥 등에서 장례식장을 모두 4곳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한 해 평균 130~140건 정도다.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80~90대 고령이라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고독사하는 국가유공자도 많아졌다는데.

고령인 국가유공자 중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가족과 교류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주위와 교류도 많지 않다보니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독사한 국가유공자의 장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독사·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만 지원하는 건 아니

라고 알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면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건 모두가 똑같으니까. 다만 가족이 없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직원들이 상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가 다른 게 있다면.

2017년부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 소속 선양단이 장례의전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선양단은 국가유공자 장례가 있을 때마다 장례식장을 찾아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설치하고 태극기 관포 등의 조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양단원들도 고령이지만 단복을 갖춰 입고 이른 새벽,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전행사와 무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부러 찾아오는 국가유공자 가족도 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생각인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관련법 개정 8월 시행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국가가 도와줍니다

8월부터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5개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부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빈소·상주 용품 등 물품 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받았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는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지방보훈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우면 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빈소 용품과 인력, 운구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 없이 쓸쓸히 마지막 길을 떠나는 국가유공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마다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나라가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

직원들이 기꺼이 함께해줬기에 받을 수 있는 상

이다. 직원들에게 고맙다.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더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국가유공자 외에도 사회를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돕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고 있다. 딸도 내가 하는 일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 내가 해온 활동이 대를 이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K**

강정미 기자

해질녘 산사 종소리에 삶의 등짐 내려놓고



이징, '해질녘 산사의 종소리', 비단에 연한 색, 376×40.3cm, 국립중앙박물관

“무각사에 가면 한 생애 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소금가마 같은 등짐이 물속에 들어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
아마 김소월이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하염없기도 그지없다’라는
시를 쓰게 된 것도 그런 체험 덕분이었을 것이다.”

올여름은 광주광역시에서 보내고 있다. 낮에는 더위가 무서워 감히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더위도 힘이 빠질 때쯤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선다. 지글거리는 도로를 벗어나 산길에 접어든다. 오후 여섯 시, 여의산에 있는 무각사에서 범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육중하게 쿵~웅 울리는 범종소리는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한다. 그 여운이 오랫동안 허공중에 머물다 사라지려는 찰나 다시 두 번째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에 이끌려 일주문을 지나고 사천왕문을 지나면 좌측에 종루가 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이 종을 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스님 같다. 인사를 드렸더니 한국에 온 지 15년 됐다면서 자신이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다. 한국사람이 된 것을 뿌듯해하는 것 같다.

이징(李澄, 1581~?)이 그린 ‘연사모종(煙寺暮鍾)’은 ‘해 질녘 산사의 종소리’라는 뜻으로 번역된 작품이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은 산과 산이 중첩된 장면을 장대하게 묘사했는데 그 사이사이를 구름과 안개로 채워넣어 공간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화면은 좌측이 무겁고 우측이 가볍다. 그래서 좌측은 무게감과 운동감이, 우측은 평온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만약 양쪽 다 무겁거나 가벼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죽도 밥도 아니었을 것이다. 전경에는 대각선으로 뻗은 언덕 위에 네 그루의 소나무를 그려 감상자의 눈길을 자연스럽게 폭포가 떨어지는 중경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구도는 이징이 몇 세대 앞에 살았던 안견(安堅)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꿈틀거리는 듯한 산의 형태, 산등성이 마다 짧은 선으로 점을 찍는 묘사법도 안견화법의 특징이다. 다만 이징은 안견의 화풍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도를 복잡하고 다채롭게 변형시켰다. 아무튼 산세는 소나무가 서 있는 근경의 언덕을 중심으로 좌측 위로 향해 있는데

대각선으로 펼쳐진 산속 깊은 곳에는 구름 위에 지어놓은 듯한 사찰이 보인다. 누각에 범종이 매달려 있는 모습까지 꼼꼼하게 묘사했다. ‘연사모종’은 8폭으로 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중의 한 폭이다. ‘소상팔경도’는 중국의 명소인 동정호(洞庭湖)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합류하는 곳의 여덟 경치를 소재로 해 그린 산수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림 소재였다.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은 산과 구름과 사찰이 어우러진 단순한 산수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팡이를 짚은 스님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스님은 속세로 연결되는 길을 뒤로하고 다리를 건너 사찰로 향한다. 스님이 향하는 곳을 따라 사선으로 향한 곳 끝에 사찰이 있다. 사찰에서는 지금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이징이 유독 누각의 범종을 크게 그린 이유도 지금 범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이었다.

무각사는 예전 군부대가 주둔했던 상무대에 있는 절이다. 지금은 군부대가 이전하고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지만 무각사가 있는 곳은 산림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5·18기념공원과 연결돼 있다. 그 덕분에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깊은 산골에 들어온 듯한 청정함을 느낄 수 있다. 한여름 더위를 뚫고 지나가는 때 아무 생각 없이 무각사 대웅전 마당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잠자리와 푸드덕거리는 까치의 몸짓을 보기를 권한다. 무각사에 가면 한 생애 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소금가마 같은 등짐이 물속에 들어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 아마 김소월이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하염없기도 그지없다’라는 시를 쓰게 된 것도 그런 체험 덕분이었을 것이다. **K**

조정욱 미술평론가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

웅녀동굴서 사진 찍고 해룡과 물놀이하고 삼국유사 설화 속으로!

삼국유사테마파크

주소 대구 군위군 의흥면 일연테마로 100

문의 (054)380-3964

대구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불린다. 삼국유사가 탄생한 인각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도 '삼국유사휴게소'다. 도로·마을 이름이 '삼국유사로', '삼국유사면'인 곳도 있다. 2020년 7월엔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삼국유사테마파크'가 문을 열어 개관 3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문화매력 100선인 '로컬 100'에 이름을 올렸다.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학습 명소로 인기인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찾았다.

삼국유사 콘텐츠 가득한 테마파크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찾기에 앞서 삼국유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국보인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의 저서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역사서이자 신앙·풍속·전설 등 야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 5권 안엔 단군의 고조선 건국부터 삼국의 역사, 후삼국의 멸망, 고려 건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민간과 사찰에 전해지는 설화도 풍부하게 수록돼 있다. 일제강점기 사학자이자 문인

1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이자 피서지로 변신한 '해룡물놀이장'. 설화 속 해룡은 슬라이드가 돼 재미를 더한다.

2 삼국유사테마파크 초입에서 입장객을 맞이하는 거대한 신화목.

3 삼국유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인 가온누리관 전경.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2



3

이었던 육당 최남선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삼국유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삼국유사 속 신화·설화·향가 등을 주제로 교육, 놀이,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체 72만여㎡ 규모의 테마파크엔 설화 속 이야기를 구현한 조형물을 비롯해 전시관,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이야기학교, 숙박동 등 다양한 시설이 두루 들어서 있다.

‘오픈런’ 하는 피서지 해룡물놀이장

이곳은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삼국유사로 시작해 삼국유사로 끝난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정문인 가온문부터 예사롭지 않다. 삼국유사 기이(紀異) 편의 서문을 새긴 목판을 조형화했다. 후문인 누리문엔 삼국유사 마지막 장에 있는 발문을 발췌해 옮겨놨다.

입장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17m 높이의 거대한 신

화목이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 내려왔던 태백산의 신단수를 모티브로 한 나무다. 나무 밑동 아래쪽엔 원효 스님이 해골로 물을 마시는 순간을 비롯해 다양한 장면을 그려냈다. 대표 포토존이어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려는 이들이 줄을 선다.

역사 이야기만 가득할 것 같지만 요즘은 가족 피서지로 변신했다. 물놀이용품은 챙겨 들고 ‘오픈런’ 하는 가족 방문객들을 볼 수 있다. 테마파크 내에 ‘해룡물놀이장(~9월 1일)’이 개장해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해룡물놀이장에선 설화에 등장하는 해룡 조형물이 원통형 슬라이드와 경사 슬라이드, 용머리물줄기 등 이색 물놀이 시설로 변신해 물놀이의 재미를 더한다. 해룡물놀이장을 찾은 한 대구 시민은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 아프리카만큼 더운 대구라는 뜻)에서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놀기에 이만한 물놀이장이 없다”며 “개장과 동시에 입장해 겨우 파라솔 자리를 잡아 피서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해룡물놀이장 옆엔 스틸 만점의 사계절 썰매 ‘해룡슬라



탑돌이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꾸민 삼국유사관 설화문화체험관의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 모형.

이드'가 기다린다. 91m 경사로를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면서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75m 코스의 상급 슬라이드도 개장을 준비 중이다.

탑돌이·목판체험... 삼국유사를 한눈에

핵심 시설은 삼국유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인 '가온누리관'이다. 은창숙 군위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린이들이나 학생 관람객들은 1층 '신화서클영상관'을, 성인 관람객들은 '일연대선사관'을 좋아하고 '삼국유사관'은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다"고 했다.

1층 신화서클영상관에선 몽골 침략에 맞서는 일연 스님의 가상 스토리를 상영한다. 상영 시간은 15분으로 짧지만

360도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영상에 진동과 바람 등의 효과가 더해져 제법 실감난다.

삼국유사관은 전체 5권 2책 9편목으로 이뤄진 삼국유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전시관 구성도 삼국유사 구성과 흐름이 비슷하다. 삼국 및 가락·후삼국의 왕대와 연표, 고조선부터 삼국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1권부터 신라 문무왕 이후 통일신라와 후백제, 탑과 불상의 기록을 기술한 2·3권, 신라 학승 및 율사의 전기를 기록한 4권, 사람들의 효행과 선행을 기록한 5권까지 우리 역사와 옛이야기가 관람 동선을 따라 이어진다. '역사의 주요한 순간들'을 정리한 연표와 삼국유사가 전하는 '향가'까지 관람하다보면 학창 시절에 달달 외웠던 역사와 문학 교과서 내용이 그제야 차곡차곡 정리되는 듯하다.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준다는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 지철로왕(지증왕)의 이야기도 다시 보니 흥미롭다.

주요 전시물엔 체험거리가 깨알같이 숨어 있다. 2층 설화문화체험관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 모형은 주변으로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빌 수 있도록 꾸몄다. 그 옆엔 유가종의 시조인 대현 스님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는 대불(大佛)장육상 이야기와 함께 장륙상 모형을 실제로 돌려보는 체험도 기다린다. 삼국유사 효선 편 이야기책을 만들어보는 목판 체험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일연대선사관에선 일연 스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과 군위와의 인연이 기다린다.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화면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삼국유사관의 전시물.

“삼국유사관은 전체 5권 2책 9편목으로 이뤄진 삼국유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역사의 주요한 순간들’을 정리한 연표와 삼국유사가 전하는 ‘향가’까지 관람하다보면 학창 시절에 달달 외웠던 역사와 문학 교과서 내용이 그제야 차곡차곡 정리되는 듯하다.”

단군신화부터 연오랑과 세오녀, 처용랑과 망해사 등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해설도 재미있다. 전시 해설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해 하절기엔 오후 5시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해룡열차 타고 테마파크 한 바퀴

가온누리관을 나서면 삼국유사 기이 편 지철로왕조에 나오는 목우사자상이 웅장한 모습을 뽐낸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때 효과를 톡톡히 본 사자상을 재현했다. 높지는 않으나 눈앞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큰 건물이 없어 연못인 ‘용담지’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전망대다.

가온누리관 부근엔 웅녀동굴도 있다. 설화 속 웅녀 탄생 이야기를 테마로 한 가상현실(VR) 포토존이 있어 사진 촬영하기에 좋다. 테마파크 테마길도 걸어볼 만하다. 영웅탄 생길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이야기를 담은 커다란 알 조형물이 반긴다. 건국신화길은 고조선부터 삼국과 발해의 건국 이야기를 벽화에 담았다. 하지만 한여름 땀별을 이겨낼 장사는 없다. 그늘이 없어 입구에서 빨간색 양산 겹 우산을 대여해주지만 축구장 100개 크기, 대구 달성공원의 6배 크기에 해당하는 삼국유사테마파크를 걸어서 둘러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시간 맞춰 운행하는 해룡열차를 타고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매표할 때 해룡열차 통합권을 끊으면 탑승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놀이장이 폐장할 무렵엔 퇴장하는 물놀이객들로 만석일 경우가 많으니 해당 시간대를 피해서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초록의 잔디가 깔린 너른 광장은 한여름엔 인기가 적지만 봄·가을엔 피크닉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테마파크 한쪽엔 가족 단위의 독채 숙박시설인 ‘역사돔’ 20동도 마련돼 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매년 7~8월엔 물놀이장 개장과 함께 물놀이 축제를, 10월엔 바비큐 축제 등 가을 축제를, 12~2월엔 눈썰매 축제를, 4~6월엔 봄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에 찾는다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군위까지 갔으니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인각사를 지나칠 수 없다. 일연 스님이 입적 전까지 삼국유사 편찬에 매진한 의미있는 곳이다. 지금의 인각사 한쪽에는 ‘인각사 발굴 조사 출토 부재’와 ‘보각국사 탐비’가 밀동만 남아 옛 인각사와 일연 스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보각국사는 일연 스님에게 내려진 칭호로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탐비는 중국 당대 최고의 명필로 평가받는 왕희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탐비는 탁본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삼국유사와는 무관하나 인각사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도 둘러볼 만하다. 

글·사진 박근희 객원기자

또 다른 로컬100

대구 웃골마을

대구 동구 둔산동 일대에 있는 조선 시대 흙돌담마을 ‘대구 웃골마을’도 로컬100 ‘문화 마을·거리·상권’에 선정됐다. 대구 지역 조선 시대 주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백불고택’ 등이 있는 한옥마을이자 경주 최씨 집성촌이다. 1616년 조선 중기의 학자 대암 최동집 선생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경주 최씨 집성촌을 이루게 됐다. 웃골마을은 웃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돌담길이 대부분 직선으로 돼 있어 소담스러우면서도 질서 정연한 정취를 풍긴다. 이곳 흙돌담은 흙다짐에 돌을 박은 형식인 토석담이 주류를 이룬다. 고색창연한 마을엔 현재까지도 종택을 포함해 후손 15가구가 거주하며 전통을 지키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광복으로 이룬 오늘’ 함께 즐겨요

‘2024 서대문독립축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 서대문구가 ‘2024 서대문독립축제’를 8월 13~15일 연다. ‘광복으로 이룬 오늘, 함께 이룬 행복 100% 대한민국’을 주제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 일대에서 진행한다. 축제 개막일인 8월 13일에는 ‘감사하는 광복의 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350여 명이 참여해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독립문까지 걸을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 서대문독립공원 무대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운동주 뮤지컬 공연, 광복절 전야 음악회 ‘행복도시의 광복 퍼레이드’, 광복뮤지컬 ‘웃는 아이’ 등이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전문해설사가 들려주는 형무소 이야기, 독립군 전투체험(물총 싸움), 심리 테스트 ‘내가 독립운동가였다면’, 미션수행 ‘광복 스탬프 랠리’ 등이 열리며 30여 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경성구치감 발굴 성과와 1930~40년대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독방에서 독립까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까지 역사 속 주요 장면을 담은 ‘그날의 역사 속으로’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1576)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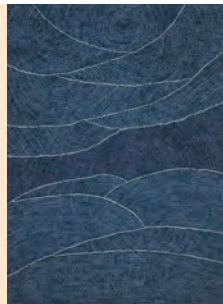


연극 달빛 상영회

국립극장이 제2회 ‘달빛 상영회’를 연다. 지난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에 공연된 작품 중 화제작 3편을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2023년 공연 당시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인정받은 국립창극단 인기 레퍼토리 ‘절창 I’, ‘절창 II’, ‘패왕별희’의 전막 공연실황을 공개한다. 4K 고화질 영상과 스테레오 음향으로 공연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기간 8월 23~25일

장소 국립극장 해맞이 쉼터



전시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

추상미술의 대가 김환기를 대형 미디어아트로 만나보자. 222m에 달하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외벽을 이용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초대형 미디어아트다. 올해 주제는 DDP 10주년을 맞아 지난 과거를 축하하고 미래 DDP의 기록을 상상하는 ‘퓨처로그(Future Log)’다. 김환기 작품 ‘시(時)의 시(詩)’로 시작해 서정적 감동을 선사한다.

기간 8월 29일~9월 8일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 2024 한여름의 과학관 - 재밌는 일이 생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 속 과학을 경험해보는 체험형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신 과학이슈를 반영한 양자과학기술 특별전 ‘상식을 벗어난 세계와 만나다’를 비롯해 과학강연 ‘양자과학기술과 설레이는 첫 만남’,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해 알아보는 기초과학실험 등을 진행한다. 모어사이언스와 협업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기간 ~8월 11일

장소 서울시립과학관

영화 |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강인한 여성의 서사 조선인 여공의 삶 통해 오늘을 보다



“조선인 여공의 삶은 피해의 역사만이 아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간 우리 민중의 역사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자 많은 조선의 소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본 오사카의 방적 공장으로 향했다. 그중엔 10대도 많았다. 먼 이국땅에서 여공으로 사는 삶은 쉽지 않았다. 수많은 차별과 폭력이 있었지만 조선인 여공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를 연출한 이원식 감독은 그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더 나아가 여공들의 서사를 단순히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간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20세기 초 일본의 방적 산업은 전 세계를 주름잡았다. 그 방적 산업을 이끈 숨은 주역은 조선인 여공들이었다. 당시 여공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일본인들이 '쓰레기'라며 버리는 육류의 내장을 구해서 먹었고 직접 야학을 열어 한글을 공부했다. 고된 노동의 피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인 여공의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며 쟁의에 나서기도 했다.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해고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자신들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의 서사다.

이 감독은 7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이민 1세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침략과 전쟁, 분쟁과 가난으로 많은 사람이 낯선 땅에서 삶을 일궈가고 있다.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8월 7일 개봉한다.

서경리 기자



저자 김을호(클라우드나인)

도서 결국 독서력이다

‘독서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을호 송실대 독서경영전략학과 주임교수는 10년 넘게 기업과 학교는 물론 군부대 장병들에게 독서와 서평을 지도했다. 김 교수는 책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서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 독서, 몰입 독서, 극한 독서, 목적 독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들을 알려준다.



저자 임채성(돌베개)

도서 음식조선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쓴 일제강점기 경제사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조선을 둘러싼 식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서부터 조선인들의 신체에 끼친 영향까지를 아우른다. **K**

서경리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는 요즘, 기분 전환에 물놀이만한 게 없죠. 얼마 전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금산삼계탕축제' 때 조성된 '더위사냥 금산삼(蔘)캉스' 특설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 모습을 보다 문득 든 생각입니다. '여론 물놀이장은 없나요?'

홍경석 대전 대덕구

공감 칭찬 합니다!



765호 '휴가철 바가지요금 걱정 뚝!' 기사에 공감합니다. 매년 가족과 휴가철에 피서를 다녀올 때마다 상인들의 비정상적 상행위로 마음 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빌려주는 각종 장비 대여료, 음식값, 숙박요금까지 평소의 한두 배는 예사로 올리니까요. 이번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당 상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니 기대가 큼니다. 더불어 상인들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피서객들이 다시는 찾지 않아 멀리 보면 손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장삼동 부산 부산진구**



764호 '무동력 갯배 타고 시간을 건너 실랑이들의 그리움을 만나'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선 명절만 되면 강원 속초에 가셨어요. 북녘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바이마을을 방문해 그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오징어순대 한 접시로 허기진 배도 달래봐야겠습니다. **강영숙 인천 부평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4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민원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폭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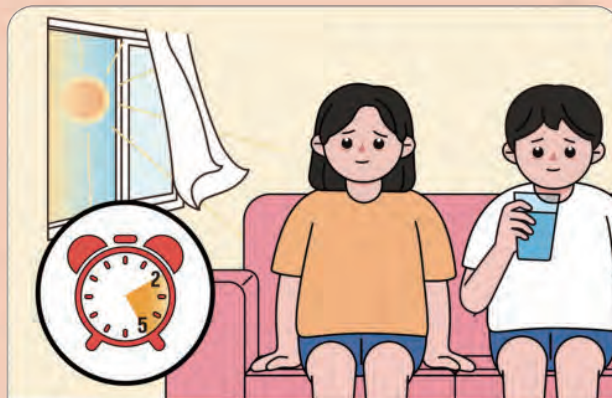
이렇게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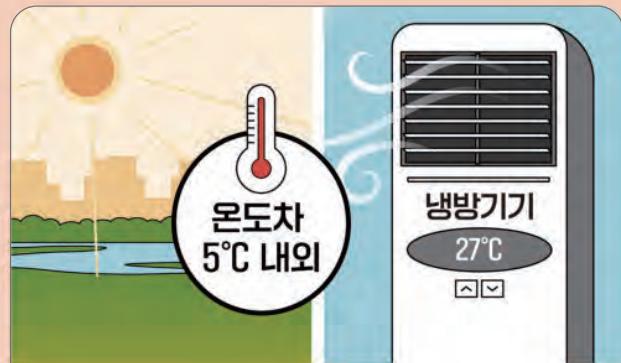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술이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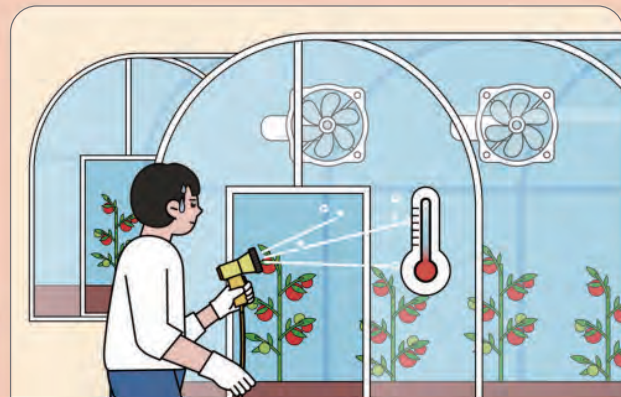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C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